

메디케어 처방약 비용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.

- ▶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인 “엑스트라 헬프(Extra Help)”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부담하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▶ 아래 표를 보시고 자신이 **풀(full)** 또는 **부분적(partial)**으로 엑스트라 헬프 수혜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.

2023년 풀 엑스트라 헬프		
월 소득 한도액	재산 한도액	환자가 부담하는 비용
\$1,660 (싱글)	\$10,590 (싱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네릭 약은 \$4.15, 브랜드 약은 \$10.35 • 총 환자 부담금이 \$7,400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\$0
\$2,239 (부부)	\$16,630 (부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간 보험료나 공제액이 없는 특정 파트 D 에 가입할 수 있음.

2023년 부분적 엑스트라 헬프		
월 소득 한도액	재산 한도액	환자가 부담하는 비용
\$1,843 (싱글)	\$16,660 (싱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 약 비용의 15% • 총 환자 부담금이 \$7,400에 도달하면, 약 비용의 5%, 또는 \$4.15 ~ \$10.35
\$2,485 (부부)	\$33,240 (부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트 D 플랜 보험료와 공제액은 부분적으로 할인됩니다.

- ▶ 이 소득 한도액은 \$20의 기본 공제액을 포함한 것입니다. 재산 한도액은 한 명당 \$1,500의 장례 비용을 포함합니다. 현재 살고 있는 집, 자동차, 생명 보험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
엑스트라 헬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?

- ▶ 엑스트라 헬프 신청은 사회보장국(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)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 (800) 772-1213 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<https://www.ssa.gov/benefits/medicare/prescriptionhelp.html>
- ▶ 또는 의료권 안내 센터(CHCR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(800) 824-0780. 저희가 엑스트라 헬프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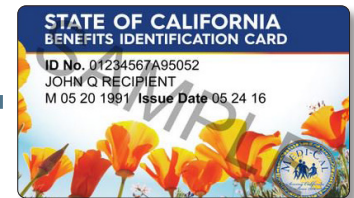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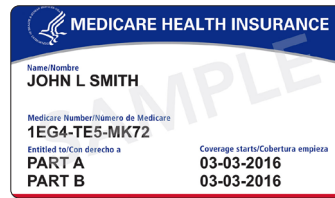
얼마나 자주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나요?

- ▶ 엑스트라 헬프 승인이 나면,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연례 가입 기간 범위 밖에서도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(Special Enrollment Period) 사용 자격이 주어집니다.
- ▶ 매해 첫 9개월 동안은 3개월 마다 한번씩 본인의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10월부터 12월까지의 다른 메디케어 수혜자들과 같은 파트 D 연례 가입 기간을 사용해야 합니다.



메디-칼 수혜자도 엑스트라 헬프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- ▶ 풀(full) 메디-칼 수혜자인 경우, 따로 엑스트라 헬프를 가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메디-칼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게 됩니다.
- ▶ 메디-칼 수혜자는 이미 제네릭 약은 \$1.45 이하, 브랜드 약은 \$4.30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.



더 자세한 정보는 의료권 안내 센터(CHCR)에 문의하세요.

(800) 824-0780

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. www.healthcarerights.org



Navigating Medicare

This publication was supported by the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(ACL), U.S.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(HHS) as part of a financial assistance award totaling \$210,834 with 100 percent funding by ACL/HHS. The contents are those of the author(s) an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official views of, nor an endorsement, by ACL/HHS, or the U.S. Government.